

“정책입안·실행 시민참여... 시민주권시대 실현”

강운태 광주시장 신년 인터뷰

강운태 광주시장은 6일 시청 집무실에서 광주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지난 민선 5기 3년 6개월간 광주공동체가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틀을 마련했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또 하계유니버시아드를 비롯해 광주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만한 획기적인 사업들이 대거 구체화되는 2015년을 영광의 해로 만들기 위해 올해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시민의 행복과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씩씩이 달려왔다. 그동안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광주의 자산과 가치가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늘 답답하기만 했던 경제적 중요도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문화와 환경, 복지, 여성, 시민소통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서 광주공동체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새로운 도약과 상생의 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시정을 이끌면서 보람있었던 부분을 꼽는다면.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킨 일을 비롯해 ‘2015하게U대회 선수촌’을 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노후아파트 재건축방식으로 조

성한 것을 성과로 꼽고 싶다. 일부 세력의 끊임 없는 5·18역사왜곡 움직임에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UN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고 민주유치 방식을 통해 명품 야구장을 신축하게 된 것,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것도 성과다. 또,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간투자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도 내세울 만하다.

U대회·애포전당 개관 앞두고

성공의 ‘징검다리’ 만들어

광주 공동체 운명 바꿀 것

-아쉬웠던 부분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유치 과정에서 정부 보증서 가뭄 문제로 지적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 광주의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U대회 선수촌 조성사업 역시 처음엔 특혜시비가 일었지만 예산 한 푼 들어가지 않고 최근 100%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처럼 결국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유언비어들이 특정 정치세력들에 의해 오로지 비판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되면서 광주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은 너무도 안타깝다.

-올해 시정의 초점은 어디에 맞출 생각인지.



▲내년에는 광주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만한 획기적인 사업들이 대거 마무리된다. 2015년 하게U대회 개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올해는 2015년을 영광스러운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운영주체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호남

고속철도가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기반구축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산업 기반육성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광주를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 무엇보다도 정책입안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주권시대를 본격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광주의 민심을 어떻게 보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실패했으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 최근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것도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상당부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새정치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가 높은 것일 뿐, 민주당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 정당을 개혁하라는 메시지이지 제3당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 역시 인물이나 조직력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의 예매호한 정책성과 신당 추진과정의 폐쇄성, 불확실한 계획 때문에 안철수 새정치에 대한 기대심리와 거품이 서서히 빠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국회의원이 지역민 고충민원 챙긴다

민주 광주시당, 시민고충상담센터 개설

민주당 광주시당(임내천 위원장)이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직접 지역민들과 소통을 통한 고충 민원 챙기기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7일부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민원상담에 나서는 ‘시민고충상담센터’(사진)를 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신년 무등산 산행을 통해 결의한 민생정치 실현 선언의 후속 조치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시민고충상담센터는 1월 중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

전에 운영되며, 광주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돌아가며 일일센터장을 맡아 민원인들을 만나게 된다.

7일 문을 여는 시민고충상담센터는 박해자(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이 첫 센터장을 맡아 상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내천 시장위원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임할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美 정치권 ‘스노든 사면’ 찬반 논란

“몇년 징역형이면 충분”

“명백한 범죄 사면 안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사실을 통해 국가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한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5일 (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스노든에 대한 처벌은 몇년의 징역형이면 충분하다면서 ‘감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가안보국(NSA)의 감시프로

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폴 의원은 스노든이 러시아로 망명한 것은 사면이나 종신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서 “몇년 정도의 징역형이라면 그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스노든을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현행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한 뒤 “그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내 생각으로는 사면이 논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40kg당 6만730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산 공공비축미의 매입가격을 포대비 1등급 기준 40kg당 6만73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등급은 매입가격은 6만2730원이며 2등급은 5만8030원, 3등급은 5만1650원으로 결정됐다.

산물비(포장하지 않은 비) 기준으로는 특등급 6만1910원, 1등급 5만9910원, 2등급 5만7210원, 3등급 5만830원이다.

이는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평균(80kg기준 17만5280원)을 비 40kg 가격으로 환산한 것으로 40kg당 6만160원이었던 2012년산보다 570원(9.4%) 높은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우선지급금(포대비 40kg 기준 5만5천원)과의 차액인 5천730원을 지급할 계획이 다.

/연합뉴스

‘설 이산가족 상봉’ 성사될까

정부, 北에 실무접촉 제의

금강산 관광 분리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북한에 공식 제의함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 연기로 막판에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다시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산가족 문제가 대표적인 인도주의 사안인데다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터여서 북한이 이산가족 행사 개최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고 이에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0일 관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이번 제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우리 제안에 동의하면 남북은 실무접촉에서 상봉 시기와 장소 등을 논의하게 된다. 작년 9월 합의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 직전 단계에서 취소됐다는 점에서 남북이 개최에 합의하면 명단 교환, 생사 확인 등 실무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경우 이산가족 상봉은 내달 초·중순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애초 지난해 추석 직후인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나흘 전에 갑작스럽게 ‘무기한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행사를 무산시켰다.

당시 북한은 남측이 ‘대결 소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상봉 무산의 책임을 우리 쪽에 떠넘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산가족 문제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분리시키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태도에 불만을 품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분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설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한 6일 오전 중구 대한적십자사 사무실 모습.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별개 사안으로 대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속단할 수는 없다.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

위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지만 북한 입장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대북제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즉각 수용하지는 않고 향후 우리 측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병행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4년째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읍 대로변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임동 요한병원 부근 4차선변 상업거리 2140㎡(646) 건물 227평 공시지가 14억7천 매도12억2천
- 금매, 지하철 상충역 사거리 대로변 중주거 377㎡(111평)병원·사육·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광주은행 본점 부근 상업지 694㎡(210평)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10억6천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금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이전 7억6천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입구 2425㎡(734)공시지가 매도 3860만원 동물사육·야적장등 적합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델,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총6억2천 매도 8억3천
- 임아 무안군 봉담면61890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6천
- 사실적합 건물 합평군 월아면 땅 2657㎡(804)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기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전원주택지 청풍동 777㎡(235)1억5천
- 북동 상업지 300평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다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플랜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관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 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워케이션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 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차세한 문은 사무실로 개방됩니다.

싼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주택부지 및 시골풍치로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해남 관리지역
(낮은 야산)
금 매

문내면 석교리

5300평
평당 3만원

폭6m 현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회원면 조선배후
단지 가능

밭,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태양광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